

마흔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서른째 수

에스겔 제11장

Jeff Pippenger

2026-09-02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의 '포위'는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을 표시하므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시험인 그 '표징'이다.

"주께서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형성될 것임을 나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며,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위조된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입증한 모든 자는 주 하나님 여호와와 의 발 아래에 설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기원을 둔 진리를 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5, 15.

케스티우스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피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경고를 받았고 그 징조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짐승의 우상의 형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일요일 법으로 이끄는 "사건들", "준비들", 그리고 "움직임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 '징조'를 이루는 예언적 요소들은 그 징조에 앞서 이해되어야 한다. 케스티우스가 포위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배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미 준비는 진전되고 있으며,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움직임들이 진행 중이다.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예언의 예고를 성취하게 될 사건들이 지구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9년 4월 23일.

준비, 움직임 및 사건들

그 "준비", "움직임", 그리고 "사건들"은 그 시험에 앞서 미리 인식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역사 가운데 과거에 성취되도록 명시하신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아직 남아 있는 모든 것도 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자리에 서 있다. 요한은 그의 자리에 서 있다. 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를 열어 보이셨으므로, 이와 같이 다니엘은 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증언, 곧 우리가 그 성취의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관하여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증거한다."

"역사와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오랜 계속된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Selected Messages, book 2, 109.

우리는 “그 성취의 바로 문지방 위에 서 있는” 때에 “크고 엄숙한 사건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문지방은 그 사건들이 성취되기 전에 미리 그것들을 이해해야 할 우리의 필요를 드러낸다.

“그러나 예언의 붓이 그려 내는 준엄한 선들은 이 평화로운 장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드러낸다.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그 짐승이 용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더라.’ 이교주의와 교황권에서 나타난 박해의 정신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이 권세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리라고 선언한다. [요한계시록 13:14.] 그 우상은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을 위하여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그 짐승이다. 이 첫째 짐승은 로마 교회를 나타내니, 곧 시민 권력을 입은 교회 조직체로서 모든 반대자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그 짐승의 우상은 이와 유사한 권세를 입은 또 다른 종교 단체를 나타낸다. 이 우상의 형성은 그 짐승의 활동인데, 그 평화로운 등장과 온건한 공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미국의 두드러진 상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황권의 한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들 사이에 공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요점들 위에 연합하여, 국가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법령을 시행하고 그들의 제도를 지지하게 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계 제도의 우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참교회는 하나님의 옛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박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세기는 교회와 국가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편협과 악의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례를 제공한다. 세속 권력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로마의 발자취를 따라간 개신교 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 왔다. 십칠세기에 수천 명의 비국교도 목사들이 영국 국교회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당하였다. 세속 정부가 종교를 편애할 때마다 언제나 박해가 뒤따른다.” 『예언의 신』 제4권, 277.

짐승의 우상의 형성은 먼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의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서지만, 동일한 위기가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닥쳐올 것이다.” 『Testimonies』, 제6권, 395.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형성의 시작을 나타내며,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달한 문을 규정한다. 서방의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리키니우스는 그 칙령에 조약 결혼을 결부시켰는데, 이는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역사 안에 있는 여섯 번의 조약 결혼으로 이루어진 예언적 계보 가운데 네 번째 조약 결혼으로 표상된 것으로서,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이복누이 콘스탄티아를 리키니우스에게 주었을 때였다. 처음 두 번은 북방과 남방 사이의 전쟁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다음 두 번은 동방과 서방 사이의 내전이었으며, 마지막 두 번은 교황권 교회 세력과 국가 권력의 상징적 결혼이다.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는 기원전 252년경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공주 베레니케(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라오디케 1세를 물리쳤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조약 결혼들은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 사이에서 성립되었으나, 313년의 조약 결혼은 동방의 황제와 서방의 황제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주전 252년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의 조약 결혼은,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6절에 제시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제국으로서 종결에 이르게 되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시작을 나타내었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마지막 역사에서 또 하나의 조약 결혼이 안티오코스 3세 대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가 주전 193년에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1세 시라(예언의 역사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주었을 때였다. 그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약 16세였고, 클레오파트라 1세 시라는 약 10세였다. 그들의 결혼은 제5차 시리아 전쟁 이후의 외교적 타결이었다. 다니엘 11장에서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알파 조약 결혼은 제2차 시리아 전쟁의 종결을 표시했었다.

예언적 역사의 마지막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관계를 맺었고, 그 후에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관계하였다.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 기원전 43년에 제2차 삼두정치가 성립되었다. 세 사람이 이 삼두정을 구성하였는데, 그 셋 가운데 하나인 마르쿠스 레피두스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그 삼중 연합에서 축출된 후, 동방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서방의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뒤따랐다. 기원전 40년 브룬디시움에서 이 동서의 두 경쟁자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결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조약과 그에 수반된 결혼은 유지되지 못하였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관계를 맺게 된 후 그는 기원전 32년에 옥타비아와 이혼하였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동서의 제국들은 하나의 권세로 통합되었고, 그 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되었으니, 그는 로마의 영광과 권세의 절정을 상징하였다.

예언적으로 볼 때 다니엘 11장의 첫 번째 조약 결혼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재건하려고 분투하던 두 전투 당사자 사이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려는 시도로서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의 그 첫 번째 조약 결혼은, 동일한 두 세력 사이의 오메가 조약 결혼을 예표한 셀레우코스 및 프톨레마이오스 왕국들의 알파 조약 결혼이었다. 마지막 곧 오메가 조약 결혼에서, 이집트 역사상 맨 처음 곧 알파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곧 오메가 클레오파트라에 이르는 예언적 연결 고리가 되었으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그녀의 관계는 옥타비아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혼을 위한 준거점이 되었다. 그 이혼은 동방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서방의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적대 행위가 다시 격화되었음을 나타내었고, 그것은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끝이 났다.

주전 40년 브룬디시움의 조약 결혼은 동과 서 사이의 투쟁에 있어서 알파 조약 결혼이었으며, 이는 라오디케와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의 조약 결혼이 북과 남 사이의 투쟁의 알파였던 것과 같다. 313년의 조약 결혼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의 알파 조약 결혼에 대한 오메가였으며,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클레오파트라 1세 시라 사이의 조약 결혼이 북방과 남방 왕국들의 오메가 조약 결혼이었던 것과 같다. 313년의 오메가 조약 결혼으로 이끈 세 조약 결혼은 모두 서로 정렬되며, 밀라노 칙령과 관련된 예언적 특성들에 대한 세 증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 서, 북, 남의 네 개의 문자적 조약 결혼은 교황권의 두 상징적 조약 결혼과 서로 정렬된다.

496년에 프랑크 왕 클로비스는 클로틸다와 혼인하였다. 클로틸다는 부르군트의 공주로서, 부르군트 왕 킬페리크 2세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문 내 권력 투쟁 속에서 살해된 뒤, 그녀는 숙부의 보호 아래 살다가 493년에 프랑크 왕

클로비스 1세에게 시집보내졌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으며, 곧 로마 교회의 니케아적/정통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당시의 다른 많은 게르만 왕가들과 구별되게 하였는데, 그들은 아리우스파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카레테나도 가톨릭 신자였으며, 클로틸다는 그 신앙 안에서 양육되었다. 그녀는 클로비스에게 이교를 버리고 가톨릭 세례를 받을 것을 끈질기게 권면한 것으로 기억되며, 그 후 496년에 이루어진 그의 개종은 프랑스와 서방의 이른바 그리스도교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클로비스는 톨비아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클로틸다의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서원하였다. 알레만니 왕은 전사하였고, 그들의 군대는 무너졌으며, 프랑크족은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 후 클로틸다는 랭스의 주교 레미기우스가 클로비스를 가르치도록 주선하였고, 그는 자기 휘하의 수천 명의 전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전승에 따르면 496년 성탄절에).

클로비스는 프랑크족의 왕이었는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프랑스의 왕이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이교 종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돌아설 유럽의 왕들 가운데 첫 번째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클로비스는 “가톨릭 교회의 만아들”로 여겨지며,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의 만딸”이라 불린다. 198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교회의 만딸 프랑스여, 너는 너의 세례에 충실하냐?”

클로비스의 니케아 가톨릭으로의 개종은 538년의 상징적 조약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상징적 혼인 행렬의 시작을 드러낸다. 클로비스와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음녀 사이의 상징적 조약 결혼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 이전의 네 차례 조약 결혼에 의해 예표되었다. 클로비스는 로마 교회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최초의 유럽 왕이었으며, 그러므로 클로비스는 다니엘 11장의 역사 안에서 표상된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 11:31.

496년의 클로비스는 교황권이 권세를 얻어 감에 따라 그것을 돕기 위해 유럽의 정치적 구조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시점을 표시한다. 그것은 상징적인 혼인 행렬의 시작을 표시한다. 또한 그 구절의 “무기들”은 “견고한 성소”를 더럽힐 것이었는데, 이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양자에게 있어서 로마 시를 가리킨다.

두 성소's

다니엘서에는 “성소”로 번역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히브리어 ‘miqdash’와 ‘qodesh’는 둘 다 “성소”로 번역되지만, qodesh는 오직 거룩한 존재만을 가리킬 수 있는 반면, miqdash는 문맥에 따라 거룩한 성소일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성소일 수도 있다.

31절의 “힘의 성소”는 ‘미크다쉬’(miqdash)이며, 이는 로마의 힘의 성소를 나타내는데,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 모두에게 그것은 로마 시였다.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을 통일하였던 악티움 해전으로부터, 이교 로마는 다니엘 11장 24절의 성취로서 삼백육십 년 동안(한 때) 무적이었다.

그는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어 줄 것이요, 참으로 한동안 견고한 요새들을 대적하여 자기의 계책을 꾸밀 것이다. 다니엘 11:24.

이교 로마가 로마 시로부터 통치할 때에는 무적이었으나,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을 때 24절의 “때”가 성취되었다. 다니엘 7장의 세 뿔 가운데 마지막 하나(고트족)가 그 성에서 쫓겨났을 때, 교황권 로마는 538년에 예언적으로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서 그 왕좌를 차지하였다. 고트족은 로마를 포위하였으나, 마침내 유스티니아누스를 위하여 장군 벨사리우스가 그 도시를 확보함에 따라 퇴각하였다. 그 후 로마 교회는 1,260년 동안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나, 1798년에 나폴레옹이 교황을 폐위하여 유배 보냄으로써 그 지배는 끝이 났다.

로마, 곧 “힘의 성소”는 그 도성이 지속적인 전쟁을 통하여 가해진 “무력”으로 인해 “더럽혀졌는데”(여기서 “더럽혀졌다”는 ‘상처를 입었거나 해체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주로 요한계시록 8장의 처음 네 나팔로 표상된다.

496년 이후에 이어진 역사는 로마 제국의 권세와 영광에서 로마 가톨릭 제국의 권세와 영광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로마 성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 팔들은 니케아 가톨릭교의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구절에서 “매일”이라는 말로 표상된 이교주의의 종교를 제거할 것이었다.

부예 전투에서 클로비스는 알라리크 2세 휘하의 아리우스파 서고트족을 격파하고 아키텐을 차지하였다. 이 승리의 여파 속에서, 508년에 동방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가 서고트족에 대한 클로비스의 승리를 기려 그를 예우하였다. 투르의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아나스타시우스는 클로비스를 집정관으로 임명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 투르에서, 성 마르틴 교회 안에서 클로비스는 자주색 튜닉과 망토를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말을 타고 나가 군중에게 금과 은을 나누어 주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날부터 그가 집정관으로 칭송되었으며, 클로비스가 서방에서 정통성을 지닌 그리스도인 왕임을 로마 황제가 인정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역시 반대하던 아리우스파 서고트족을 꺾은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 508년은 동방의 황제가 가톨릭 프랑크 왕을 공개적으로 예우한 해였으니, 곧 교회와 승리와 로마적 정통성이 한 장면 안에 함께 선 해였다. 508년은 프랑크의 가톨릭 왕국이 아리우스파 서고트족의 지배를 깨뜨린 후 갈리아에서 지배적인 가톨릭 세력으로 서게 된 해이다. 클로비스는 아리우스파 왕국들에 맞서 니케아 가톨릭 신앙을 위하여 싸운 최초의 주요 야만인 왕이며, 따라서 “교회의 장녀”로서의 프랑스의 역할의 원형이다. 클로비스는 496년부터 508년에 이르는 시기를 대표하며, 상징적 혼인 조약의 알파 상징이다.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은 유스티니아누스로 대표되며, 그는 그 행렬의 오메가 상징이다.

538년에 그 “팔들”은 교황권을 1260년 동안 지상의 보좌 위에 앉혔다. 그때에야 비로소 496년에 시작되었던 혼인 행렬의 종결과 함께 상징적 조약 결혼이 완결되었다. 1798년에는 로마의 교황과 프랑스의 클로비스 사이에 시작되었던 그 조약 결혼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의 장군으로 하여금 교황을 포로로 잡게 함으로써 교황권과

이혼하였을 때에 해소되었다.

알파를 상징하는 교황권의 조약 결혼은 496년에 그 혼인 행렬을 시작하였고, 538년의 일요일 법령에서 성취되었으며, 그 후 1798년에 무효화되었으니, 이는 다니엘 11장의 다른 모든 조약 결혼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은 유럽의 왕들과 가톨릭의 교황들 사이의 교황적 혼인 관계에 더하여 증언하니, 이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이 곧 사탄이자 이교 로마의 왕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은 주로 사탄을 나타내는 한편, 부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9.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왕들(용)이 가톨릭교회의 바다 짐승에게 세 가지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2.

496년에 유럽의 왕들은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적 지원으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권세”를 교황의 짐승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330년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로 옮겼고, 그 결과 로마 시는 교황권의 “자리”로 남게 되었다. 그 후 “무기”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이 내려진 533년에 교황 교회를 모든 교회들의 머리로 규정하였다. 그 칙령에는 교황권이 이단으로 지목한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써 그들의 시민적 “권위”가 교황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교황권과 유럽의 왕들 사이의 알파 조약 결혼은 496년에 클로비스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508년에 이르러, 왕국의 법정 종교였던 이교는 제쳐지고 니케아 가톨릭교의 종교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황권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였고, 그들 각자의 왕좌가 지닌 법적 권위를 교황권에 넘겨주었다.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

330년에 로마 도시는 로마 교회의 손에 맡겨졌으며, 그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못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게 된다. 538년에 그녀는 교황의 보좌 위에 다시 공식적으로 앉게 되었고, 이로써 330년부터 538년까지의 역사는 알파 자리로 시작하여 오메가 자리로 끝나는 예언적 기간으로 규정된다. 이 기간은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버가모)의 종말을 나타내며, 330년에 시작되어 두아디라의 도래와 함께 538년에 끝나는 점진적인 쇠퇴로 제시된다.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는 모두 53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서히 해체되었으나, 이 기간은 330년에 로마 도시를 상징하는 자리를 교황권에 넘겨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538년에 이르러 그 자리가 단지 그 도시에 대한 보좌가 아니라, 그 도시가 대표하는 왕국 위의 보좌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

330년에서 538년까지는 교황권의 권한 부여를 규정하는 ‘여덟’ 이정표의 특정한 예언적 기간이다. 이 여덟 단계는 장차 임할 일요일 법에서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반복된다.

여덟 단계 중 첫째 단계는 로마 시를 교황권에 넘겨준 것이었고, 여덟째 단계는 그 도시를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의 보좌로 넘겨준 것이었다. 이것은 538년을 그 보좌로, 곧 “이전의 일곱 단계에 속한 여덟째 단계”로 규정한다. 첫째 단계는 보좌를 넘겨준 것이었고 여덟째 단계도 보좌를 넘겨준 것이었으므로, 330년에 해당하는 첫째 단계는 알파이며 538년은 오메가이다. 두 보좌, 제거된 세 뿔, 폐하여진 매일 제사, 클로비스의 개종,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은 모두 합하여 여덟 단계가 되며, 그것들은 혼인 행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인 자체를 식별해 준다.

1798년에, 538년에 교황권을 왕좌에 앉혔던 열 유럽 왕들을 대표하던 세력인 프랑스는 바로 그 왕좌에서 교황권을 끌어내렸다.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역사 속에 표상된 알파 조약 결혼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과 교황권 사이의 오메가 조약 결혼을 예표한다. 496년부터 538년에 이르는 결혼 행렬은 미국의 마지막 여덟 대통령과 일치하는 여덟 단계를 예표한다. 클로비스와 프랑스는 열 유럽 왕들의 상징이다. 그들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 될 미국을 대표한다.

다니엘 11장의 앞선 다섯 조약 결혼은 말세의 여섯째이자 마지막 조약 결혼과 일치한다. 북방과 남방의 알파와 오메가 조약 결혼은 남방에서 온 신부가 알파임을 밝히며, 오메가는 북방에서 온 신부이다. 이교 로마의 조약 결혼들에서는 동방에서 온 알파 신부가 서방에 주어졌고, 313년의 오메가는 서방에서 온 신부였다. 이 네 결혼은 클레오파트라 첫째와 클레오파트라 마지막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황 로마의 상징적 조약 결혼은 신랑을 열 왕의 예언적 동맹의 으뜸 왕으로, 그들의 신부 곧 로마의 붉은 여인과 연합하는 자로 나타냈다. 이혼은 1798년에 그 열 왕의 으뜸 왕에 의해 집행되었다.

313년의 조약 결혼은 교황권이 미국, 곧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며 프랑스의 두 뿔 가진 권세로 예표되는 두 뿔 가진 권세와 맺는 최종적인 조약 결혼을 나타낸다. 496년 클로비스로 시작되어 마침내 538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과 538년 교황권의 즉위로 이어진 역사는, 1989년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역사를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일들을 계속 다룰 것이다.